

삼대가 함께 한 (필리핀) 단기선교

(이종헌, 송영희, 이준영, 남재은, 이로이, 이로우)

현재 섬기는 더사랑의교회에서 몇 달 전에 의료선교팀을 결성했는데 이번(2023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처음으로 의료선교를 계획하고 대원을 모집했습니다. 대상지역은 고석진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필리핀 이사벨라주의 산티아고(마닐라 공항에서 북쪽으로 약 370km) 일대 3개 마을입니다. 의료선교팀 20명과 일반선교팀 20명으로 계획하고 대원을 모집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분의 목사님 포함 38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현직 의사 6명). 거기에는 유아(만 5세)와 어린이, 청소년 등이 9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료선교를 위한 의약품 준비 등은 몇 달 전부터 진행되었지만, 일반선교팀을 포함한 선교준비는 한 달전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기도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여서 릴레이 금식기도는 출발 당일 점심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의료팀은 나름대로 진료 절차 및 약제담당 등을 의논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일반팀에서는 복음팔찌, 풍선사역, 색종이사역, 가정방문사역, 레크레이션, 네일아트 등 복음전도를 위한 관심끌기 사역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38명이 몇일을 먹을 떡국, 김치, 밑반찬 등의 준비에도 빈틈없이 준비한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서 보니까 생각한 것 이상으로 대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와서 감동이었습니다. 달고나, 딱지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 등 각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전도의 베테랑 전사였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들과 며느리가 의료팀으로 참여하는데 문제는 혈기가 왕성한 두 손자(만 5살, 8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번 선교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선교에 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때이고 삼대가 함께 선교에 참여할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반팀으로 참여하여 두 손자를 돌보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집 초기에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사역의 진행은 출발 당일부턴 은혜이고 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수화물이 20kg까지 허용되고 기내용 가방은 7kg까지인데 의료선교에 필요한 수많은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소분하여 각자의 가방 무게를 최대한으로 맞추고 그래도 남는 수화물이 상당량이었어서 화물 요금을 내고 가져갈 계획이었는데, 막상 그 요금을 규정대로 다 내려면 수백만원의 경비를 지출해야 되었는데 항공사 측에서 그 초과분의 수화물을 무료로 보내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가방 속에 수많은(5-7kg) 의약품이 들어 있었는데 필리핀 입국하면서 한 사람도 세관의 문제없이 모든 물품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한 사람쯤은 많은 양의 의약품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문제없이 모든 물품이 잘 운반되었습니다.

기적은 또 일어났습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산티아고로 가려면 국내선으로 까우아얀(Cauayan)공항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데 그곳 공항이 활주로가 짧아 안개가 조금만 있어도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번에 잘 착륙한 것이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리조트 숙소에서 자고(모기와의 전쟁 등은 당연히 있는 일이고, 화장실 물이 안 나와서 바가지로 물을 퍼부어야 하는 것과 대부분의 방에 더운물이 안나오는 것 등은 필리핀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일이고), 다음날 사역 첫째날 아침 식사부터 그곳에 있는 동안 먹은 음식은 식사를 잘 못해서 사역이 힘들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모든 반찬이 모두의 입에 맞았다는 것은 다녀온 사람만 공유하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사역 첫날 차로 2시간 30분을 가서 악파족 사역을 하는데, 사역지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학교에 진찰용 테이블을 설치하고 접수부터 약제까지 동선을 짜고 일사분란하게 준비를 마치고 진료 시작. 그런데 의료팀에서 일반팀원 중 약제부를 도울 사람 신청을 받았습니다. 약삽을 약종이에 끼우는 작업과 약을 환자에게 전해줄 때 현지 통역에게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가 그 일에 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기왕성한 두 손자가 일반팀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되지만 같이 친분을 쌓은 형과 누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과감하게 약제부에 투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손자는 일반팀에 배정되어 가정방문사역까지 열심히 감당했고, 우리 부부는 약제부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뒷받침을 잘 해 냈습니다. 그런데 투약방법을 현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약사와 의사들이 조제한 것을 제가 인계받아서 통역에게 영어로 말하면 그들이 현지인에게 따갈로그어로 친절히 설명을 해 주는데 그 두 명의 통역이 현지인 메디칼 닥터였습니다. 미리 섭외가 되어 어디선가 통역 지원을 나왔는데 우리 팀이 진료하고 처방하고 투약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두 한 병원에서 나온 것이냐는 물음에 그게 아니라 각각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한 교회에서 봉사차 나온 것이라고 하니까 감동을 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 하며 내년엔 꼭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일반사역팀은 한국 문화체험 등을 하다가 가정방문을 나가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 의료팀에서는 처방을 받고 투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현지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팀 목사님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은 바나왓 지역, 셋째날은 낙띠뿌난 지역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그날 사역에서 있었던 일, 느낀 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각자가 경험한 은

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생생했던 간증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날 사역 대상인 악마족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정착지를 옮겨 다니며 산에서 사는데, 그들은 필리핀 토착 원주민들로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선거권이 없고 정부 지원이 없어서 필리핀 사람들도부터도 무시당하며, 그들이 정착하여 살던 산지를 나중에는 다른 필리핀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들을 교육시키고 한 곳에 정착하도록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교사님이 가장 큰 바램입니다. 그들 대부분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며 그래서 발에 상처가 많은데 우리 의료팀 닥터가 그들의 발을 물로 씻기고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방문팀에서는 3개 조로 나누어 우리 팀원들이 세제와 락스 등 생활용품의 무거운 짐을 지고(어린이도 동참) 가가호호 방문하며 물건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집은 무슬림이니까 건너 뛰자는 현지인 통역의 말에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기도 하고, 한 팀에서는 통역이 없어서 현지인 가정을 놓고 한국말로 뜨겁게 기도해 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도 눈물을 흘린 경우도 있으며, 비가 와서 땅이 질퍽했는데 현지인들이 나와서 발 디딜 곳을 마련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분은 몸이 무겁고 지쳐서 도저히 사역을 나갈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자고 작정하고 기도를 했더니 순간적으로 몸이 회복되어 현장에 동참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22일 주일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고 마닐라로 이동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려고 까우아얀 공항으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잦은 결항을 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었고 그것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에 일어났고, 사역 시작 전에는 회항하지 않고 무사히 착륙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비행기표값을 환불하고 전세 버스를 다시 대절하고 꼬박 10시간 걸려 밤 11시에 마닐라 숙소에도착했습니다. 그날 낮에 마닐라에서 계획되었던 일정은 자동 생략되었고, 다음날 아침 느즈막이 모여 마닐라 인근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다음날 새벽(24일 01:20) 비행기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첫날 사역에서 비에 젖은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엉덩방아를 찧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동행한 정형외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먹었음), 체력이 약하여 몸이 피로한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건강이나 체력에서 문제 없이, 그리고 처음 참여 신청을 했던 사람들 전원이 코로나 감염 등의 이상 없이 참여한 것, 세관의 문제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대원의 바램처럼, 위장병 환자에게 감기약을 주었더라도(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처럼 감기약이 위장약으로 변하여 위장이 싹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사역을 했는데, 사역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역을 잘 하고 현지인들의 반응이 좋다고 우리가 해냈노라고 기뻐하지도 말고, 현지인들을 얼마 만나지 못하고 별로 사역을 못한 것 같다고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실 것을 기대할 뿐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님을 알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손자들이 천방지축 말썽을 피울 것 같았지만, 준비과정부터 나름대로 사역을 할 거라고 색종이 접기를 연습하고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고 하는 연습 과정부터, 사역 현장에서 현지인 어린이들과 호흡하며 같이 놀아주고, 작은 손자(만 5세)도 풍선을 불어주고, 큰 손자는 가정방문 사역에 짐을 들고 동참하고 형과 누나들을 따라다니며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 어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귀한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아직 어린 손자들이지만 몸이 자람에 따라 믿음도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그들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항상 선교사적 삶을 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20230124)





10,000 Reasons - Matt Redman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Worship His holy name

(거룩하신 이름)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I'll worship Your holy name

(나 주님을 경배해)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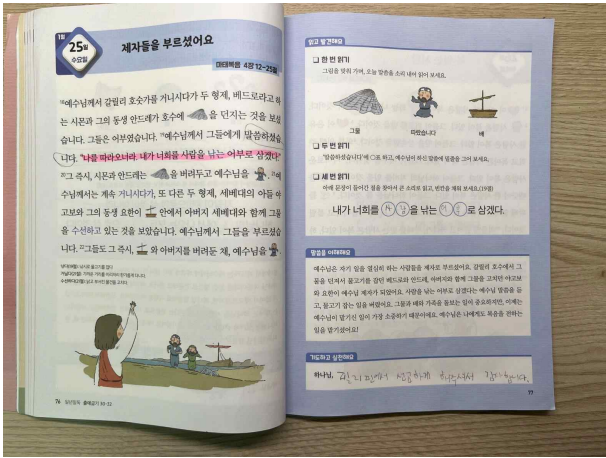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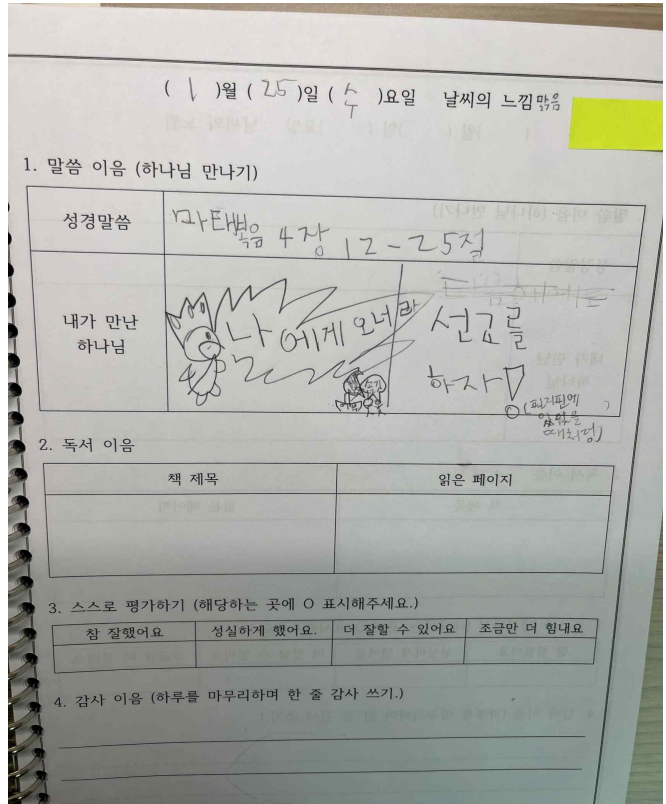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Ten thousand years and then forevermore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이로이 아침 묵상>



<기도후원자 감사 편지>

